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황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

The School-Age Children's Copings: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민 하 영
교 수 유 안 진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Ha Young, Min

Professor : An Jin, Y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in copings and copings according to an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The subjects were 489 the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seve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ANOVA.

Major findings were that (1) Correlations among corresponding copings across stress situations-such as parents, friend-alienation, friend-conflict, and learning related stress situations- ranged from $r=.27$ to $r=.67$, reflecting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in copings. (2) Generally, children with an internal locus of control used more active coping behaviors, but used less passive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s than children with an external locus of control in stress situations.

* 이 연구는 2000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을 받음.

I. 서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누적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은 경험된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고 있다(박희석·손정락·오상우, 1993; Carson, Swanson, Cooney, Gillum, & Cuninghame, 1992;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Folkman & Lazarus, 1985).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긴장감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직면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대처행동은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 변화 가능성, 사회적 지지 가능성 등과 같은 인지적 평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민하영·유안진, 1999; Compas, Banez, Malcarne, & Worsham, 1991; Thurber & Weisz, 1997)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처행동에 관한 인지-현상학적 시각에서,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행동(contextual behaviors)임을 강조한 Lazarus와 Folkman 등(Folkman, 1984; Folkman & Lazarus, 1980, 1985;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oLongis, & Gruen, 198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처행동에 관한 인지-현상학적 시각에 따라 대처행동을 상황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대처행동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들 안에서 사용하는 대처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된다는 점이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Causey & Dubow, 1992;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ausey와 Dubow(1992), Compas, Malcarne 등(1988)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학업문제와 대인간 문제의 대처행동 사이에 .40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Ayers, Sandler, West와 Roosa(1996)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Carver 등(1989)의 연구에서는,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처행동 전략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처행동 성향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인의 대처행동 내용이 상황마다 변화하지만 그 폭이 넓지 않음(Compas, Forsythe, & Wagner, 1988)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마다 대처행동의 선택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개인적 성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기초한 상황적 행동 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함의하고 있다.

둘째,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이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특질(trait)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직관이 아닌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처행동의 상황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향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처행동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는 대처행동이 통제소재, Type A, 신경증적 성격, 외향적 성격 등 개인이 지니는 성격 특성이나 특질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Kliewer, 1991; Parkes, 1984, 1986; Watson & Hubbard, 1996). 이와 같은 사실은 Lazarus와 Folkman 등이 폄하한, 대처행동에 대한 성격 특성이나 특질의 영향력이 대처행동 이해시 간과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처행동의 상황간 일관성 및 개인의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대처행동 연구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 변수로 한정하여 수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Holahan & Moos, 1987; Parkes, 1986; Terry, 1994). 최근 개인의 행동을 일관성있게 지배하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대처행동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대처행동에 관한 제 3세대적 시각이라 불려지는 몇몇 연구자들(Bolger, 1990; Suls, David, & Harvey, 1996:

Watson & Hubbard, 1996)은 인지-현상학적 시각의 Lazarus와 Folkman 등이 주장한 상황적 행동으로서의 대처행동 뿐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성향적 행동(dispositional behaviors)으로서의 대처행동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대처행동의 경우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을 규명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3세대적 시각으로 아동의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상황적 행동 뿐 아니라 성향적 행동 특성의 중요성을 수용하는 제 3세대적 시각을 아동의 대처행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 노력이 우선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기초적이거나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한 제 3세대적 시각의 적용 가능성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선행연구(김교현·전경구, 1993; Causey & Dubow, 1992; Compas, Forsythe, et al., 1988; Compas, Malcane, et al., 1988; Gamble, 1994; Terry, 1994)에서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두가지 스트레스 상황안에서 나타나는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처행동의 스트레스 상황간 일관성을 주장하고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화시킨 후 이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아동의 대처행동이 내외 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성격 특성은 상황간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일관되도록 하는 특성(Schultz, 1990)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

사이에 일련의 성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Carver et al., 1989; Suls et al., 1996). 내외 통제소재는 성격 특성의 한 차원을 구성하는 요소(Rotter, 1990)로, 대처행동은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Blanchard-Fields & Irion, 1988; Kliever, 1991; Parkes, 1984).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적인 통제소재자는 운, 재수, 과제의 난이도,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는 외적인 통제소재자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다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며, 외적 통제소재자는 내적 통제소재자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내외 통제소재와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피험자가 자유 선택한 단일 스트레스 상황이나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행동과 내외 통제소재간의 관련성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간 일련의 성향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와 더불어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의 성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대처행동의 스트레스 상황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을 통해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은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은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대처행동의 성향적 행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아동에게 지도하거나 교육하려는 부모, 교사, 상담가 등에게 유용한 정보, 지침, 또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 뿐 아니라, Lazarus와 Folkman 등의 상황적 시각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함을 밝힌 민하영과 유안진(1999)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아동의 대처행동을 제 3세대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성격 특성에 따른 대처행동 성향을 연구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특성 중 하나인 통제소재가 일반적으로 10세 이후에 안정적 성향으로 기능(Connell, 1985)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에 앞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통계연보(1997)의 구(區)별 지방세 징수액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7개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구에서 1개교씩을 유의표집한 후, 6학년 각 2개반을 선정하여 총 14개반 남녀 아동 526명을 조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 가운데 남아는 253명(51.7%)이었으며 여아는 232(47.4%)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스트레스 상황

대처행동의 스트레스 상황간 일관성과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b)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부모관련(부모한테 형제나 친구와 비교되거나 야단맞거나 꾸중받을 때), ② 친구-소외관련(친구가 나를 따돌리거나 무시할 때), ③ 친구-갈등관련(친구가 조그만 일에도 잘난 척 할 때), ④ 학업관련(학교 시험) 스트레스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스트레스 상황은 각각의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b, 199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대처행동 측정도구

대처행동 측정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a)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29문항)는 적극적(6문항), 소극적(6문항), 공격적(6문항), 회피적(6문항), 사회지지 추구적(5문항) 대처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게 안했다(0점)', '조금 그렇게 했다(1점)', '많이 그렇게 했다(2점)', '매우 그렇게 했다(3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범주별 대처행동의 점수 분포는 0에서 18점(5문항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경우, 6문항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대처행동 합에 12를 곱하여 사용)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하영과 유안진(199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3) 통제소재 측정도구

아동의 통제소재 척도 구성을 위해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소재 척도(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Connell(1985)의 아동의 통제력 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를 참고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30문항이었으나 문항 변별도와 구성 타당도 확인 과정에서, 변별력과 설명력이 낮은 10문항을 제외하였다. 통제소재 척도는 내적 통제소재 문항 10문항과 외적 통제소재 문항 10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의 4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내적 통제소재 문항의 경우 각각 4에서 1의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외적 통제소재 문항의 경우, 각각의 응답에 대해 역으로 점수를 주었다. 점수범위는 32점에서 7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상분포곡선에서 평균±(0.5×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각 값의 표집 분포는 상, 하위 각 30.85로 약 31%를 나타낸다(차배근, 1982).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아동의 통제소재 가운데 상, 하위 약 30%에 해당하는 아동을 내, 외적 통제소재 아동으로 조작 구분(Kliever, 1991)하기 위해 아동의 통제소재 평균±(0.5×표준편차)를 내,외 통제소재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통제소재 평균(60.7) + (0.5×표준편차:7.6) 이상인 139명의 아동을 내적 통제소재 아동으로, 통제소재 평균 - (0.5×표준편차) 이하인 120명의 아동을 외적 통제소재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통제소재 아동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의 내부 요인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아동으로 외적 통제소재 아동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운, 재수, 과제의 난이도,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아동으로 조작 정의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수집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격일로 4차에 걸쳐 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통제소재는 조사 첫날 1차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1차 질문지는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 담임교사 입회하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수했다. 그리고 이를 후부터는 교사의 지도하에 질문지가 실시되고 회수되었다.

아동에게 배포된 질문지와 회수된 질문지는 모두 526부였으나 이중 부실기재된 37부를 제외시키고

489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자료 분석은 window형 SPSS-PC의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와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관련, 친구-소외, 친구-갈등,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된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는 <표 1>과 같다.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부모관련, 친구-소외, 친구-갈등,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r=.27$ 에서 $r=.67$ 범위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이 사용하는 범주별 대처행동이 상황간 $r=.40$ 정도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김교현·전경구, 1993; Causey & Dubow, 1992; Gamble,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친구-소외, 친구-갈등,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상황과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상황 등 친구와 관련된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간 상관계수는 $r=.55$ 에서 $r=.67$ 에 이르는 중간정도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r=.51$), 공격적($r=.67$), 사회지지 추구적($r=.54$) 대처행동간 상관계수는 부모관련이나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의 적극적($r=.38 \sim r=.44$), 공격적($r=.27 \sim r=.41$), 사회지지 추구적($r=.43 \sim r=.49$)

〈표 1〉 스트레스 상황간 범주별 대처행동의 상관관계

| 대처행동 범주 | 스트레스 상황 | 부모관련 | 친구-소외 관련 | 친구-갈등 관련 | 학업관련 |
|-------------|--------------|----------|----------|----------|------|
| | | 적극적 대처행동 | | | |
| 적극적 | 부모관련 | 1 | | | |
| | 친구-소외관련 | .44*** | 1 | | |
| | 친구-갈등관련 | .39*** | .51*** | 1 | |
| | 학업관련 | .38*** | .40*** | .43*** | 1 |
| 소극적 대처행동 | | | | | |
| 소극적 | 부모관련 | 1 | | | |
| | 친구-소외관련 | .58*** | 1 | | |
| | 친구-갈등관련 | .39*** | .55*** | 1 | |
| | 학업관련 | .58*** | .52*** | .50*** | 1 |
| 공격적 대처행동 | | | | | |
| 공격적 | 부모관련 | 1 | | | |
| | 친구-소외관련 | .41*** | 1 | | |
| | 친구-갈등관련 | .38*** | .67*** | 1 | |
| | 학업관련 | .31*** | .27*** | .39*** | 1 |
| 회피적 대처행동 | | | | | |
| 회피적 | 부모관련 | 1 | | | |
| | 친구-소외관련 | .48*** | 1 | | |
| | 친구-갈등관련 | .40*** | .44*** | 1 | |
| | 학업관련 사회지지 | .31*** | .34*** | .36*** | 1 |
| 추구적 대처행동 | | | | | |
| 사회지지 추구적 | 부모관련 | 1 | | | |
| | 친구-소외관련 | .45*** | 1 | | |
| | 친구-갈등관련 | .45*** | .54*** | 1 | |
| | 학업관련 | .43*** | .46*** | .49*** | 1 |

주1) *** $p < .001$

주2) 전체 사례수는 489명이나 각 스트레스 상황내 범주별 대처행동의 사례수는 결측치로 인해 차이가 남

대처행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행동간에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Compas, Forsythe, et al., 1988; Patterson, Smith, Grant, Clopton, Josepho, & Yager, 1990) 서로 다른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행동간에는 낮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Compas, Malcarne, et al., 1988; Mellins & Baker,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의 유사성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상관관계가 강약 또는 유무의 기록을 보

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간에 나타나는 아동의 대처행동 성향성을 부정하기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게 한다.

2.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내외 통제 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 차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중심으로, 아동의 통제소

재에 따라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과 외적인 통제소재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범주별 대처행동 중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대처행동이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적극적 대처행동(F(1,249)=15.88, p < .001)은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소극적(F(1,249)=13.21, p < .001), 공격적 대처행동(F(1,244)=57.73, p < .001)은 내적 통제소재 아

동에 비해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는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범주별 대처행동 중 소극적, 공격적 대처행동만이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 대처행동(F(1,244)=10.41, p < .01)과 공격적 대처행동(F(1,242)=22.39, p < .001)은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는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상황

<표 2>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 대처행동범주 | 통제소재 | 사례수 (%) | 대처행동 평균 | 대처행동 표준편차 | F값 |
|------------------|---------|------------|---------|-----------|----------|
| 적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5 (53.8) | 7.37 | 3.60 | 15.88*** |
| | 외적 통제소재 | 116 (46.2) | 5.59 | 3.34 | |
| 소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5 (53.8) | 5.46 | 4.40 | 13.21*** |
| | 외적 통제소재 | 116 (46.2) | 7.52 | 4.55 | |
| 공격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1 (53.3) | 1.59 | 1.97 | 57.73*** |
| | 외적 통제소재 | 115 (46.7) | 4.34 | 3.57 | |
| 회피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4 (53.2) | 7.16 | 3.56 | .19 |
| | 외적 통제소재 | 118 (46.8) | 6.96 | 3.70 | |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3 (53.4) | 3.04 | 2.92 | 1.03 |
| | 외적 통제소재 | 116 (46.6) | 3.42 | 3.02 | |

<표 3>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 대처행동범주 | 통제소재 | 사례수 (%) | 대처행동 평균 | 대처행동 표준편차 | F값 |
|------------------|---------|------------|---------|-----------|----------|
| 적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9 (52.7) | 6.37 | 3.95 | 1.61 |
| | 외적 통제소재 | 116 (47.3) | 5.76 | 3.57 | |
| 소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2 (52.7) | 4.17 | 4.17 | 10.41*** |
| | 외적 통제소재 | 114 (52.7) | 5.99 | 5.99 | |
| 공격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0 (52.7) | 3.68 | 3.68 | 22.39*** |
| | 외적 통제소재 | 114 (52.7) | 6.15 | 6.15 | |
| 회피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1 (52.7) | 5.95 | 5.95 | .10 |
| | 외적 통제소재 | 115 (52.7) | 5.81 | 5.81 | |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0 (52.7) | 3.54 | 3.54 | .86 |
| | 외적 통제소재 | 111 (52.7) | 3.96 | 3.96 | |

주) *** p < .001

〈표 4〉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 대처행동범주 | 통제소재 | 사례수 (%) | 대처행동 평균 | 대처행동 표준편차 | F값 |
|------------------|---------|------------|---------|-----------|--------|
| 적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5 (53.1) | 5.91 | 3.93 | 9.16** |
| | 외적 통제소재 | 119 (46.9) | 4.53 | 3.26 | |
| 소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2 (53.0) | 3.17 | 3.61 | .89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7.0) | 3.61 | 3.74 | |
| 공격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4 (53.2) | 3.70 | 3.84 | 9.23** |
| | 외적 통제소재 | 118 (46.8) | 5.21 | 4.05 | |
| 회피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2 (53.4) | 4.70 | 3.20 | .00 |
| | 외적 통제소재 | 115 (46.6) | 4.70 | 3.10 | |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33 (53.2) | 3.31 | 3.29 | 1.05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6.8) | 3.73 | 3.19 | |

〈표 5〉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 대처행동범주 | 통제소재 | 사례수 (%) | 대처행동 평균 | 대처행동 표준편차 | F값 |
|------------------|---------|------------|---------|-----------|----------|
| 적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8 (52.2) | 7.91 | 3.96 | 2.04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7.8) | 7.20 | 3.88 | |
| 소극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7 (51.8) | 4.54 | 3.98 | 10.50*** |
| | 외적 통제소재 | 118 (48.2) | 6.19 | 3.99 | |
| 공격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6 (51.9) | 3.84 | 3.31 | 10.96***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8.1) | 5.32 | 3.63 | |
| 회피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7 (51.9) | 3.48 | 3.48 | 2.39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8.1) | 2.95 | 2.95 | |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 내적 통제소재 | 126 (51.9) | 3.82 | 3.82 | .15 |
| | 외적 통제소재 | 117 (48.1) | 3.45 | 3.45 | |

주) *** $p < .001$

에서의 대처행동 중 적극적, 공격적 대처행동만이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행동($F(1,252)=9.16, p < .01$)은 외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F(1,250)=9.23, p < .01$)은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은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중 소극적, 공격적 대처행동만이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외적 통

제소재 아동은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소극적 대처행동($F(1,243)=10.50, p < .001$)과 공격적 대처행동($F(1,241)=10.96, p < .001$)을 유의하게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3〉, 〈표 4〉, 그리고 〈표 5〉의 결과에서 내적 통제소재 아동이 외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외적 통제소재 아동이 내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소극적 대처행동이나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적 통제소재자가 외적 통제소재자에 비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높으며 외적 통제소재자가 내적 통제소재자에 비해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정서 중심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

다는 Terry(1994)의 연구결과 및 욕구좌절시, 외적 통제자가 적대적 공격반응을 많이 사용한다는 송금희와 김효심(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표 2>, <표 3>, <표 4>, 그리고 <표 5>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적극적 대처행동이 친구-소외관련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리고 소극적 대처행동이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외 통제소재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처행동의 차이만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 대처행동은 내적 통제소재 아동이 외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소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은 외적 통제소재 아동이 내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외 통제소재와 같은 아동의 성격 특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결론 및 논의

대처행동의 상황적 시각에서 그동안 간과해온, 대처행동의 성향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서울시 소재 7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489명을 대상으로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범주별 대처행동의 스트레스 상황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소재의 성격 특성에 따른 범주별 대처행동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간 평균 .43의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토대로 아동의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 등의 대처행동에 관한 상황적 시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대처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황간 일관되게 또는 안정되게 나타나는 대처행동의 성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경험적 연구결과(김교현·전경구, 1993; Carver et al., 1989; Gamble, 1994)와 같이, 아동의 대처행동

은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해도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써, 어느 정도 안정된 또는 일관된 행동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대처행동이 중간 수준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상황이 변화하여도 일관되게 반응하도록 하는 성격 특성(Schultz, 1990)이 대처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주장(Carver et al., 1989)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주별 대처행동의 스트레스 상황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Lazarus와 Folkman 등의 대처행동에 관한 상황적 시각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성격 특성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대처행동은 아동의 성격 특성인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갈등관련, 그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에 걸쳐 내적 통제소재 아동은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소극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보다 적게 사용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걸쳐 외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성취수행의 동기인 통제감에 있어 내적 통제소재 아동이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높은 통제감을 지니는 내적 통제소재 아동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높은 성취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문제해결 노력인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극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걸쳐 내적 통제소재 아동보다 외적 통제소재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 것은 외적 통제소재 아동이 내적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성취수행의 동기인 통제감이 일반적으로 낮고 행동결과의 원인을 외부로 귀인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외적 통제소재 아동은 일반적 통제감이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수행동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 문제로 인

한 손상된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동결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외적 통제소재 아동은 문제유발의 책임을 상대방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감을 보상받기 위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는 스트레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대처행동을 유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적 통제소재 아동이라 해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높은 통제 가능성을 지각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황(Causey & Dubow, 1992; Terry, 1994)에선, 소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인 적극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외 통제소재의 성격 특성에 따라 대처행동 사용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는 대처행동을 상황적 행동(situational behaviors) 뿐 아니라 성향적 행동(dispositional behaviors)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대처행동에 대한 제 3세대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내외 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 외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함께 고려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지니는 성향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동의 대처행동을 회고적 자기 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을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등 구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된 적극적, 소극적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기보다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처행동을 측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질문지와 면접 또는 관찰을 병행하거나 자기 보

고의 기술일지를 사용하여 대처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김교현·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2) 민하영·유안진 (1998a).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3) 민하영·유안진 (1998b).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9(2), 77-96.
- 4) 민하영·유안진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한국아동학회지, 20(1), 61-77.
- 5) 박희석·손정락·오상우 (1993).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79-196.
- 6) 송금희·김효심 (1993).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 반응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67-79.
- 7) 서울특별시(1997).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 8) 차배근 (1982). 사회통계방법, 서울: 세영사.
- 9) Ayers, T. S., Sandler, I. N., West, S. T., & Roosa, M. W. (1996).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coping. *J. of Personality*, 64, 923-958.
- 10) Blanchard-Fields, F., & Irion, J. C. (1988). The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coping in two contexts: Age as a moderator variable. *Psychology and Aging*, 3, 197-203.
- 11)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25-537.
- 12) Carson, D. K., Swanson, D. M., Cooney, M. H.,

- Gillum, B. J., & Cuningham, D. (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 13)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14)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15) Compas, B. E., Banez, G. A., Malcane, V., &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 of Social Issues*, 47(4), 23-34.
- 16) Compas, B. E., Forsythe, C. J., & Wagner, B. M. (1988). Consistency and variability in causal attributions and coping with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305-320.
- 17) Compas, B. E., Malca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18)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36, 91-109.
- 19)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852.
- 20)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21)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22)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23) Gamble, W. C. (1994).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and other stressor event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coping among you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65-84.
- 24)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25) Kliev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89-697.
- 26)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27) Mellins, C. A., Gatz, M., & Baker, S. (1996). Children's methods of coping with stress: A twin study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6), 721-730.
- 28) Nowicki, S., & Strickland(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48-154.
- 29)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30) Parke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77-1292.
- 31) Patterson, T. L., Smith, L. W., Grant, I., Clopton, P., Josepho, S., & Yager, J. (1990). Internal vs. exter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to stressful life-events in the elderly. *British Journal of*

- Medical Psychology*, 63, 149-160.
- 32)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493.
- 33) Schultz, D. (1990). *Theories of personality*(4th Ed.). CA: Brooks & Cole.
- 34) Suls, J., David, J. P., & Harvey, J. H. (1996). Personality and coping :Three generations of research. *J. of Personality*, 64(4), 711-735.
- 35) Terry, D. J. (1994). Determinants of coping: The role of stable and situational factor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895-910.
- 36) Thurb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elopment Psychology*, 33(3), 508-517.
- 37) Watson, D., & Hubbard, B. (1996). Adaptational style and dispositional structure: Coping in the context of the five-factor model. *J. of Personality*, 64(4), 737-774.